

제 210 호

대림 제1주일

(C해 시작)

1976. 11. 28.

#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 감론 □



## “늘 깨어 기도 하시오”

(루가 21, 36)

### 이 대 권 신부

“홍창대며 먹고 마시는 일로 세월을 보내거나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오.” (루가 21, 34) 그리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 하시오.” (루가 21, 36)

음과 양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느덧 대림절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낙화 유수다’, ‘낙화 광음이다’ 말 하듯이 고된 인생 향로! ... 잘도 지나갑니다. 춘하추동 사시절도 막바지. 안간힘을 다하여 이제는 열풍설한이 닥쳐 왔구려! 불란서 바스칼이 말하듯 ‘생각하는 갈래’란 우리 인생의 백서(百書) - 어두움을 헤치고 광명의 희망속에 사람을 찾아오시는 구세주 주님을 정성도 아 우리네 마음에 따뜻하게 모셔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격동하는 사회와 극변하는 세계정세가 오늘의 삶에 시달린 인간의 가슴에 쓰라릴 공포증을 느끼게 하여 줍니다. 물질양면에 고된 호흡을 하는 오늘의 현대인! 주님의 모상을 닮아야 할 인간의 참된 모습이 점점 불투명하여져 가지나 않나? 이제 1년을 또 헛되게 보낸감이 있는가? 아니, 건잡을 수 없이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안정시켜 “늘 깨어 기도 하시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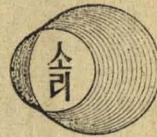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잠을 깨고 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합니다. 생각하는 인간이, 행동하는 인간이 되어 봅시다. 구름각각인 어둠속에서 잠을 깨어 주님의 구세광명으로 발걸음을 재촉합시다. 추상적인 이론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도피에 흡입하여 개인 주의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 전진하는 신자가 되어 봅시다. 구태의연한 자기 중심, 자기 변명, 의타주의..... 이 모든 가시범플에서 용감하게 새로운 나의 얼굴, 주님의 모상을 되찾기에 분부 노력합시다.

저는 40여년전 중학교 1년에 읽은 ‘인생 독본’이란 책을 읽고 년말이나 대림절엔 인생무상함을 회고합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저서인듯 생각됩니다.

용감한 한 사나이가 의기양양하게 청춘을 하늘 높이 밟고 먼 사막길을 떠나가자 뭔가 뒤에서 추격하는 예감이 있어 돌아보니 성년 호랑이가 오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앞에 보이는 연못으로 툭툭 뛰어 들었습니다. 어느덧 호랑이는 못 들레에 다가와 산천이 두너저라하고 으르렁 매는 메 은 물이 얼은 듯하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 보니 못 가운데 나무가 있어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허기가 들고 사경에 이르렀던바 유심히 나무앞을 쳐다보니 벌꿀이 많이 깔려 있어 그 나무잎 꿀을 따 먹다보니 달콤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공포증도 없어지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딱 푹푹 무슨 소리가 자꾸만 들려서 내려다보니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 먹고 그 사람 운명은 또다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익크! 이제는 살길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정말로 그는 깨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흰쥐와 검은 쥐는 주야 세월를 말하며, 탈푼한 끝은 현세적 향락..... 교형 자매 여러분!  
금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늘 깨어 기도합니다.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임신부>



## 꿈과 촛불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가끔 꿈가꿈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많고 고달플 때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내일이 있기에 잊고 넘어간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다.

까마라 대주교는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남을 수 있지만 3백만의 꿈은 현실안에 있다」고 말했다. 이 말씀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과 강원룡 목사의 대답을 소개한다. <월간 對話 11월호, 권두 대담 「이 민족에게 希望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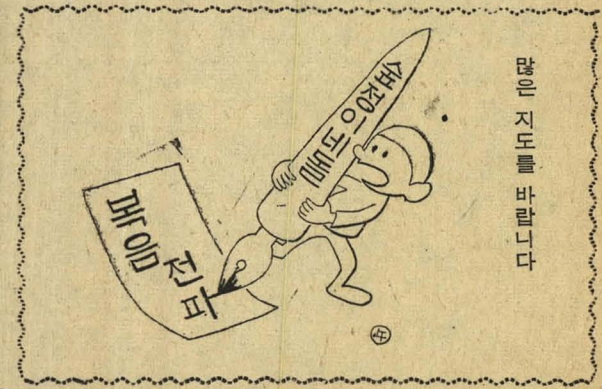
우리의 영원한 내일을 위해 이 대림절에 꿈을 갖고 촛불을 켜자.

김수환 - 「한 사회에서 누군가 먼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전파되고 점차 확대되어 모든 사람의 꿈이 될 때는 분명히 현실화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꿈이란 말은 인간다운 인간사회, 정의롭고 진리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보자는 꿈이죠. 우리도 우리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꿈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겠고 교회가 그 촛불을 밝혀야 되겠죠. ... 어둠을 타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촛불을 하나 밝히게 되면 나도 촛불을 밝혀야겠다. 너도 촛불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전파되어 수백만 크리스찬이 촛불을 밝히고 같은 꿈을 갖게 되면 그 꿈은 분명히 현실화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룡 - 「꿈을 가진 사람들이 소리를 합해 가지고 나아가면 그래도 이 아주 광 광 얼어붙은 것이 녹아질 수 있고, 창문을 조금 뚫어놓으면 가득찬 개스가 나가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숲 정 이 산책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 3.1사건 항소 공판 방청기 (2)

김 영 신 신부

20일 오전 10시25분 증인신분이 시작되었다.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 소리들이 공판정을 나른다. “모 교수는 변질돼서 만나와도 되는데 나왔군.” “왜 방청권 때문에 항상 시비를 하는가?” “여기는 법정이니 코트 벗으시오.”...

4명의 증인 증 유진오 박사만 신병으로 불참했다. 증언대에 선 장원중 교수가 변호사들과 말을 나눈다. 방청석은 찬물을 뿌린듯 냉랭한 분위기다. 차관, 외자, 외채, 농업정책, 공업 등등의 토막말이 들리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장교수는 고개만 옆으로 흔든다. 옆 사람에게 물으니 장교수는 정부통제만 말하겠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수군댄다. 그러나 장교수는 검찰측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의곡」을 했다고 답변한다.

농산물의 선 구매가를 높여줘 농민의 소득증대, 식량부족 상해를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는 적자를 보고 국내시판에서 얻은 이익으로 적자를 매꾸는 수출진흥책에 대한 비판은...?

“바람직한 일이며 그에 대한 비판은 인정한다.”

—일본 자본이 무섭게 침투되고 있으며, 저자세로 제약된 석유문제 등의 외채 투자로 우리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인력착취, 차관상환금 및 기술분야 등 3중 4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자기나라에서는 공해법으로 묶인 업체들이며 보따리 장사들인데 금융상 특별보위법, 외자투자 임시조치법 등을 발동하여 노조 결성까지 막아놓은 실정인데...

“그런 것은 모른다.”

—국내 차관기업은 적자로 빚지고, 차관언어 빚지는데...

“외국의 예로 보아 신경과민이 될 필요없다.”

증인 오세웅 의원은 연대와 서울대 교수였으며 현재 국회 외부분과위원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많이 나갔었다. 검사의 제지가 여러번 있었으나 자기는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이. 뭔지 알고 있으며,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닌만큼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지하라고 미소 띄워 말하며 끝까지 여유있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제3세계를 적대시한 것이 분명하다. 인도 추출 태도, 인도 수상을 만난 고 신익희씨에 대한 반공법 적용, 월남파병에 따른 유엔총회의 개표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실패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도 온건파 국가들이 27개국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전망이 있다.

또한 리마 회의에서의 월남 빈여사의 발언, 북괴의 유인물 살포사건을 볼 때 김대중씨 말대로 정규군 파병보다는 외교상의용군 형태의 파병이 더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금년엔 상황이 전보다 좋다.

더우기 종교인들의 비판이 도덕적 기준이 되어 가치판

을 옮겨하는 차원이 있다면 반영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우방국과 비동맹국은 자연적으로 어께를 같이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인권이 보장되어 우방국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74년 「민청학련 사건」이후 계속 「박동선 사건」(480양곡 매도, 미국 상하의원에 대한 뇌물증여 문제), 「결프 석유회사에서 정치자금 170만불 수뢰 사건」등 인권, 학원, 종교탄압 문제로 한미외교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미국원조가 중단될 우려도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반대의 소리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비판하지 못하는 이복과 같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증인 천관우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편집국장, 동아일보 주필 등을 역임한 분으로 언론의 기본원리부터 현실정까지를 진지하게 증언한다.

“언론이란 취재(뉴스 수집), 전달, 평론을 하는 것으로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적 미국형의 언론으로 견제주의적 쏠런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국가안전에 관한 사항,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유보되어야 하지만 제도상 사전 사후 검열이란 없는데도 언론은 극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는 길이 들어서 신문사 자체, 기자 스스로가 제약하고 있으며 외부의 압력까지 받고 있다.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화사건으로 인한 해고」, 「명도사건」, 「75년5월25일 서울대 폐모사건」등이 긴급조치 9호나 정치적 개념이 있다하여 보도가치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28시간내에 보도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더욱 「김지하 시인 반공법 위반 사건」(內信)과 「박동선(실업인)사건」(外信)은 보도가치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지하가 공산주의자인지, 정부가 뇌물을 뿌렸는지의 사실여부가 밝혀지는 기사는 당연히 보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들어오는 외지가 먹칠해지고 페이지가 잘려나가기까지 한다. 이렇게 <저극히 제약받는> 언론인들이지만 사실 우리 언론인들은 대단한 애국자들이다. 그들을 신뢰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해주어야만 언론 자유가 있다고 하겠다.”

「경향신문사 매도사건」, 「동아일보 광고사건」, 「긴급조치 9호 1항 처벌규정으로 해임, 신문 중지, 배포 중단」등이 언론의 압살이 아니냐는 물음에 조심스레 증언하는 것을 듣다가 찻시간 때문에 법정을 나섰다.

(전주교구 판리국장)

## 한국 (流)온수온돌 연탄 보일러

★ 꼭 찾아 주세요.

※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젠 염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립니다.

연락처 : 전주시 중앙성당 상가

전 화 : ④ 4874, ② 2628

법 창 규 (베드루)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 한국 (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등 압(모이세)

노송동	④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④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전동	④2143	김제	45	무주		
군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 숲정이 창간 4 주년 □



# 편달(鞭撻)과 협조를...

1972년 12월 3일 숲정이 창간호가 교형 자매들에게 선을 보였다. 많은 분들이 잘되기를 빌어주면서도 잘 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 이제 4주년을 맞는 오늘 숲정의 발자취를 잠시 더듬어 본다.

숲정이가 출범하던 날, 창간 발행인 김 영일 신부님은 숲정이는 우리 신자들 개개인의 자기성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소망했다. 당시 교구장 서리 김 재덕 주교님은 「복음 선포의 길잡이」가 되어 줄것을 축사로 당부했고, 당시 교구 평신도 대표 송영선 회장은 「평신도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축하를 했다.

창간 첫돌에 조 성호 주교는 숲정의 사명은 「가르치는 일, 평신도의 광장, 일치의 햇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돌날 김 재덕 주교님은 「명실(名實)이 같은 교구 주부가 되기를」 당부하였고, 발행인 김 종택 부주교님은 「교우들의 의식 계발이 숲정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였고, 본지 인쇄인 범석규 신부님은 「은 집안 식구들의 협력이 필요」 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세돌날 요십이는 숲정이 산책에서 「아직 어려서 미숙한 점이 많ی」있다고 응석을 부리는데도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장이었던 이 병희씨는 「창간호로 시작하여 차곡 차곡 매어놓은 숲정이를 볼 때마다 우리 교구의 발전사를 보는 것만 같아 정말 흐뭇한 마음 그지없다」고 축하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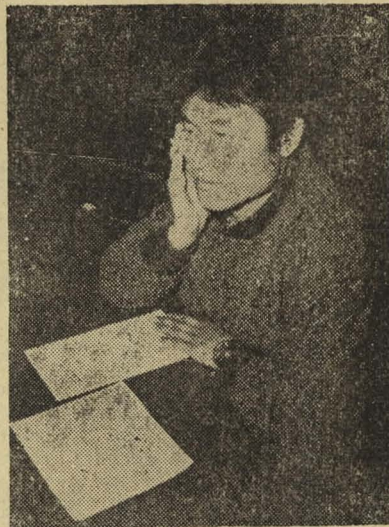
그래서 숲정이는 오늘 더욱 쫁쫁넌다.

오직 편달과 협조만을 빈다.

공소에서든 제날짜에 숲정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본당의 협조를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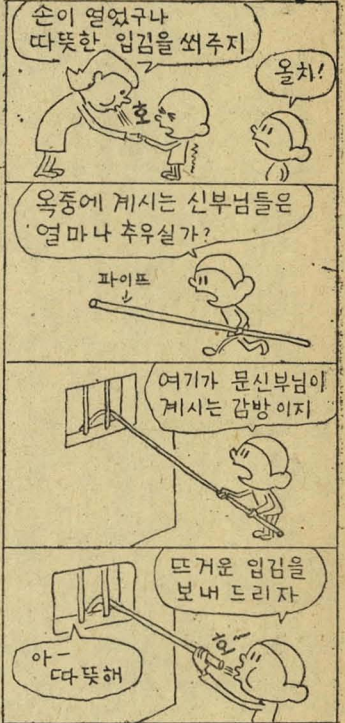
본당에서의 숲정이 대금 미수액만도 70여 만원이다. 본당의 협조를 또 빈다.

우승로 체납때문에 편집실 직원들이 봉급으로 때우기도 한다. 본당의 협조를 또 빈다. <甲>



□ 숲정이 산책은 끝났는데 요십이를 어떻게... 명상에 잠긴 김병오 편집위원.

## 요십이(174) 김병오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 (아오스당)  
전화 ② 1665

건강 상담, 특수 처방

### 동양약국

군산시 문화동 880-5  
<카디날 장갑 공장 앞>  
약사 김예자 <마리아 막달레나>

□ 회소식 !!!

### 나왔다 가스 완

(연탄가스 제독제)

- ★ 16년간 연구하여 국립 연구기관인 유해가스 제독의 우수한 성적서를 획득하였음.
- ★ 1개월 경비 500원

□ 책임지고 따뜻하게

- ★ 한국(流) 온수 보일러
- ★ 금화식 보일러

가스완 전주 특약점  
한국(流) 온수 보일러 전통 지점  
주 원배 (실배들)

□ 전주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② 2 1 4 3)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 5 4 4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 미미제과소

전화 ③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 <가타리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 사항 ※

1. 가톨릭 농민회 연수회 <12월 1일(수) - 4일(토), 가톨릭 센터>
2. L.M 연총 친목회 <12월 8일(수) 밤 7시, 전동 성당>  
◎ 각 프레스디움 별로 다과, 음료 준비바람. (단일, 협조 단원은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3. 4 지구 중 고등 학생회 회장단 회의 <11월 28일 오후 1시, 전동 사제관>
4. 전주교구 중 고등 연합회 제 3차 회장단 회의 <12월 12일(일)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 참가비 1인당 - 200원
5. 혼인 문제 상담 예고 <12월 7일(화) 예정, 교구청>  
■ 謹吊 이 벨로리아노 중군(11월 22일 선종, 불탄서에 유학 중인 이 병호 신부님 아버지)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이종원  
                  사도 회장 이상용

1. 방ziger 삼회 월례회: 다음주 오후 2시반.
2. 성심 부녀회: 12월 3일
3. 전주 공고셀 「제 15주년 공개 Cell」: 11월 28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 ◎ 많은 참석바랍니다.
4. 본당 확인지도: 12월 3일(금)  
◎ 전 신자 재교육 실시하오니, 매호 1인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을 판공 일정: 12월 6일(월)~10일(금) 까지,  
가을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 고백 구역-서노 1, 2구, 진북 1동, 인후동, 중노송동. (지정된 날에 빠짐 없이 임하여 주세요) 판공비는 준비하시어 본당 사무실에 접수바람.  
□ 학생-토요일 오후 3시~6시까지.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애령회 정기 총회: 오늘 공식 미사 후  
◎ 빠짐 없는 참석바랍니다.
2. 사도회 상임 위원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 후
3. 복자회: ① 지난 19일 정기 총회에서 명칭 변경 및 임원 선출 <명칭-부녀부 → 복자회로>, 기금 총액 90,000원.  
② 임원 <총회에서 선출, 본당 신부 인준 발표>, 회장-총영자(루시아, 태평 2가 3-1573), 부회장-김 화자(글라라, 효자동 2-6016), 총무-최 복주(젠바, 태평 2가 3-2770), 재무-박 귀순(모니카, 중화산 2-8328), ◎ 많은 기도과 적극적인 협조로 본회 발전에 기합시다.
4. 국군 장병들에게 성탄 위문품, 위문금, 위문 편지를 다같이 보냅니다. <12월 14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박종용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 회원 여러분의 빠짐 없는 참석바랍니다.
2. 재속 형제회 수련식: 오늘 저녁 미사 후  
대상-청·장년 20세~40세까지의 남, 녀
3. 교무금 신임을 속히 합시다:  
아직까지 신입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하세요.
4.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 11월 30일(화)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으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청년회 및 어머니회 결성: 오늘 10시 미사 후  
◎ 많은 참석바랍니다.
2. 어머니회 총회: 29일(월) 오후 2시.
3. 본당 사무 감사 및 피정: 12월 1일 ※ 사도임원, 제 단체 및 전 교우들의 성의있는 참석바람.  
<피정: 오후 7시반, 장소-성당>
4.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5. 공소 판공: 구이 광곡리-12월 3일, 구이 마우리-8일, 구이 석구리-9일, 상관 공소-13일~15일.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 축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 공식 미사후, 축하식
2. 봉헌금을 속히 신입하세요.
3. 봉헌 봉투 틀린 곳이 있으면 사무장에게 알려 주십시오.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12월 5일>
5. 신용 협동조합 임원회: 12월 6일 12시.
6. 금주 성당 신축 헌금: 김 수근(10만원)  
총계 4,987,500원.
7. 사무장 박 요근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유석중

1. ★ 본당 후보 축일! 12월 3일(외부 행사 다음주)
2. 판공 성사 예정 일정: 12월 13일~18일(동별)
3.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4. 청소년 목상회 예정: 12월 12일(가톨릭 센터)
5. 금주간 가정 심방: 동, 서 교동.
6. 중·고등 학생은 주일미사 반드시 9시 미사로!
7. 성탄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성미, 의류)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수신태인정	청년회 월례회	7,44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다음주 대의원회	85,910원
		청년회 임원회, 푸리아회				푸리아 200차 월례회 단합대회	34,380원
		예비신자 임원 선출	4,305원			사도회 월례회, 유아세례	9,730원
제 2 지구	대울동중합	사도회 월례회	20,585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덕진사학동전	공고셀(15주년 공개Cell)	100,676원
		매일 밤 성가연습				재속 형제회 월례회	44,480원
		안나회, 유아세례, 봉성제				★ 축! 본당신부 영명 축일	38,505원
		예비자 합동 환영식, 신자생활 상담	8,490원			애령회 정기총회	29,740원
푸리아 회합, 유아영세, 가정방문	61,650원	청년회 및 어머니회 결성	25,505원				
카리따스 월례회, 어린이 성세식	41,475원	12월 청소년 목상회	114,550원				
성탄절 교리경시대회 안내	15,810원						
레이오 아치에스 행사	11,99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미남공소 강당신축 기금위한 대모임	8,05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다음주 교리교사 월례회	12,755원
		다음주 상임위원회 월례회	17,150원			성모회 월례회	8,950원
		연령회 월례회	8,050원			자모회 모임 판공 안내	9,080원
			19,620원			가정 방문	5,270원